

포교 · 신행 소식

풍경소리, 미술치료사 2급 과정 개설

8월 22일까지 매주 화·목 오후 6시 진행

풍경소리(대표 혜자)가 '미술치료사 2급 자격증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미술치료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유치원·보육시설 종사자, 종교단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6월 25일~8월 22일 풍경소리 학교 대강의실에서 매주 화·목 오후 6시부터 진행한다.

커리큘럼은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정신병리와 미술치료, 심리진단법, 대상별 미술치료, 색채심리학, 집단미술치료, 매체활용기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강좌 수료시 한국심성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미술치료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35만원이며 선착순 20명 모집이다. (02)736-5583

동국대 국제선센터, 7월 불교영어강좌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7월 불교영어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한국어 강의와 영어 강의 두 가지로 나누어 개설됐다.

불교영어강좌의 '붓다의 음성'은 불림 스님이 틱낫한 스님의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을 교재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알기 쉽게 영어로 매주 목요일 1시 30분부터 강의한다. 영어강좌의 '티벳불교와 힐링'은 매주 월·수 3시부터 엘리자베트 에스코가 달라이 라마의 《Stages of meditation》을 교재로 명상하는 법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자애심, 통찰, 지혜 등을 일깨워준다. (02)2260-3891

이나는 기자

사회적기업 시니어 창업 워크숍 개최

날마다좋은날 6월 14~15일 청평풍림리조트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홍)이 운영하는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6월 14~15일 청평풍림리조트에서 2013 사회적기업시니어창업전문과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 개강식에는 수강생 25명이 참여했다.



2013 사회적기업시니어창업전문과정 워크숍에 참여하는 수강생 25명.

워크숍은 김종각 기획본부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명상힐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사회적기업 시니어창업전문과정 아카데미는 8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전법회관 지하교

육장에서 진행된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헤민 스님과 템플스테이 할 청년들 모여라

불교문화사업단, 7월 5~7일 2030 템플스테이 개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2030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2030을 위한 마음치유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7월 5~7일까지 충남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진행된다.

행사에는 헤민 스님이 참여하며 △템플스테이 문 열기-재미있는 불교문화 소개와 전통예절 익히기 △태화산 숲길 명상 △ '이야기로 풀어요' 대화 명상 △ 음악 명상 △나를 위한 108배 △헤민 스님의 행복한 문고 답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20~30대 청년층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02)2031-2000 이나는 기자

“법회서 게임·윙동 활용하니 만족도 ↑”

불레협, 수도권 포교활성화 위한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 회향

어린이·청소년 법회 등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법사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법회를 진행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전하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 이하 불레협)는 1985년 7월 창립 이래로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법회지도자들과 법회 개실이 필요한 사찰을 위해 불교레크리에이션 아카데미 등 정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불레협은 법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리 전달법, 찬불가, 놀이, 도탈공예, 프로그램 작성법 등 법회 기획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지도력까지 이론과 실습에 조화를 두어 지도교사들이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법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불레협은 지난 3월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혜만 스님이 강조한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양성 교육 전국 확대'와 '수도권 중심 법회 지도자 양성'을 중심으로 올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에 불레협은 수도권 포교활성화를 위한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를 지난 4월 9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진행, 6월 25일 회향했다.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에는 김포, 남양주, 수원, 안산 등 서울·경기 지역에서 제



불레협은 수도권 포교활성화를 위한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를 지난 4월 9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진행했다. 20여 참가자들은 폼아트, 실내게임 등을 통해 다양한 법회 운영 방안을 배웠다.

가자와 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해왔다.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이끌거나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 역량으로는 법회지도도를 하는데 한계를 느낀 이들이다.

3개월 동안 불레협이 소개한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Ice Break', 두뇌를 활용하는 컵 실내게임을 비롯해 캠프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캠프파이어와 촛불의식, 폼아트 활용한 실내장식 등이 그들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쉽고 재밌는 레크리에이션을 배워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유인 화운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인 우경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관심이 많지만 전문 지식 없이 법회를 하려니 부족함을

느껴서 게임 등을 배우기 위해 참여했는데 많이 배우고 간다. 올 여름 템플스테이에 응용해볼 계획"이라며 "웃음치료, 간단한 게임과 같은 불교레크리에이션이 어린이·청소년 법회 뿐 아니라 일반인 법회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분위기를 살리는데 유용하다"고 했다.

서울 육천암에서 어린이·청소년 관리 부장을 맡고 있는 신정민 씨는 "스님과 법회지도교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던 정도였는데 이곳에서 중복되는 것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줘 도움이 됐다"며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회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 3개월 과정이 끝나고 한 번씩 점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레협은 올해부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과정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두 사무총장은 "불교레크리에이션을 배우기 위해 지방서 오신 분들이 거리상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봤다. 교육을 원하는 인원이 20명 이상만 되면 때와 장소가 갖춰진 곳은 어디든 찾아가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레협은 제5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감수회를 지역별로 진행한다. 감수회는 △대구경북지역- 6월 29일 은혜사 △강원지역-6월 30일 낙산사 △서울·경인, 대전·충청 지역- 7월 13일 묵동 국제선센터 에서 진행되며, 제주지역은 7월 6일 제주시 인근에서 시행된다.

프로그램은 △진리의 행복-도구와 지혜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보시의 행복- 불교학교 체험프로그램의 활용과 실제 △만남의 행복-찬불가 윙동의 활용가 실제 등을 주제로 마련됐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불레협은 24년 동안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300여 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여름·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감수회를 44회 실시하면서 25000여 명이 수료, 정기 교육을 통해 3만 여명이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포교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파라미타 사경 공모전 대상 장수려·안진주

파라미타 수상자 발표...36개교·사찰서 450여 건 응모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며 심신을 키우는 '청소년 사경공모전' 대상에 장수려(남양주 광동고2, 문체부장관상), 안진주(남양주 광동고3, 봉축위원장상) 학생이 선정됐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6월 18일 제16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우수상은 안정윤(의정부 광동고2), 오민식(보문고2) 학생 등 4명이, 우수상은 이수진(장유고2) 학생 등 4명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렸으며, 전국 사찰과 학교 36개소에서 450여 건이 응모됐다.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대상 2명 등 모두 75점의 수상작품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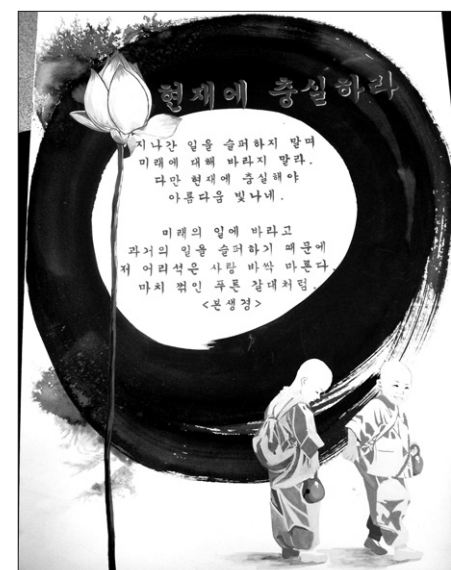
파라미타는 이번 공모전을 열며 《본생

경》(범화경) 수능엄경 제2권 등 2가지 주제를 시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경작은 파라미타 상임이사 범경 스님, 불교 TV전통사경법회 지도법사 행오 스님, 사경연구가 김경호 선생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예술성, 창작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

올해 사경공모전의 특징은 예년보다 사경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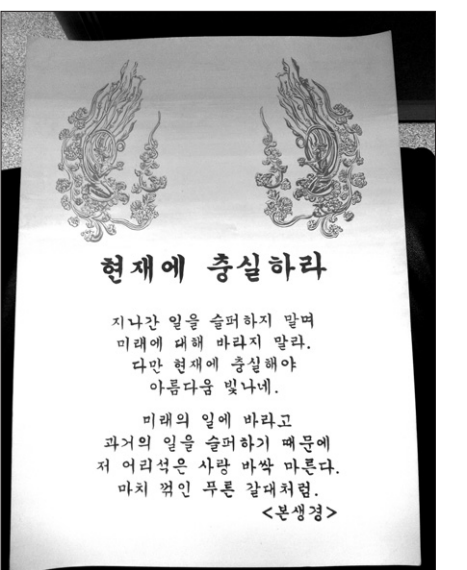
파라미타는 "예전에는 그림으로 시화처럼 구성된 사경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매일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경한 작품을 비롯해 구도자적인 느낌을 담은 사경들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파라미타는 대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올 7월 별도의 시상식을 열 계획이며, 나머지 수상자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찰에서 개별



제16회 청소년 사경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들. 사진 왼쪽부터 장수려 학생, 안진주 학생 작품.

시상하게 된다. 각 수상자 명단은 파라미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



작품은 홈페이지에서 게재된다. (02)723-6165 이나는 기자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그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Advertisement for Eco-cups featuring images of cups and promotional text about environmental benefits.